



위기의 지역 농업 활로를 찾자

10 구레 조경수 재배 김진석씨

‘농업도 경영’... 끊임없는 연구·투자로 고소득 창출

“농업은 이제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입니다. 따라서 많은 개발비와 연구비를 투자하고 체계적인 생산(재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조경수와 야생화 재배방법에 대한 시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에 적용시키고 있는 김진석(41)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에서 ‘해담농원’을 운영중인 김씨는 귀농한 지 10년 만에 연 3억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화공과 농민이다.

광주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지난 1998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귀농한 지는 10년이 됐지만, 실제 조경수와 야생화 재배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귀농 이후 곧바로 농사를 시작하지 않고 차근차근 5년을 영농준비에 시간을 보낸 것이다. 대학에서 임학(林學)과 영문학을 전공했던 김씨는, 선불리 시작해 실패하기는 싫어서였다.

◇‘농업도 산업이다’=김씨는 현재 6만6천여㎡의 땅에 동백·구실잣밤·가시나무 등 상록 활엽수와 철쭉·광나무·병꽃나무·사철나무 등의 관목류를 비롯한 총 20여 종의 조경수와 육묘(育苗) 100만 본 가량을 키우고 있다. 김씨의 농원 한쪽에는 1천322㎡ 부지에 비닐하우스로 된 연구동이 있다. 이곳에서 김씨는 한국 고유 수종 개발과 함께 상록 활엽수종 육묘(育苗) 용기(포트) 생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각각 다른 환경에 따른 조경수와 야생화 발육상태 등을 실험하는 등 시험연구를 통한 다양한 재배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 연구실에서 일반 퇴비에 미생물(발효제)을 넣어 1년 정도 숙성시켜 사용하는 미생물 퇴비를 만들어 사용중이다. 지난해 연구와 실험비로 들이간 돈이 3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김씨는 투자비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련도 있었다. 제작년에는 미생물 퇴비를 잘못 만들어 조경수 3만 본 이상이 고사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김씨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농가를 찾아다녔고, 그 결과 지난해에는 만족할 만한 퇴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씨는 “일반 농사는 낙후된 1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조경수와 야생화 재배·생산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많은 실험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농업기술도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영농기술을 배워 놓아야 새로운 연구개발도 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조경대류 대량 양산체계 및 활용방안 연구

조경수 20종·육묘 100만본 키워 귀농 10년만에 연간 3억원 소득 실내·화분용 등 다양한 상품 개발

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았고, 2006년에는 2중 자동화 하우스 시설 지원을 받아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줄였다.

◇새로운 도전=김씨가 재배한 조경수 대부분은 모두 전국에 있는 조경회사 또는 건설 현장에 납품하고, 육묘는 농가에 분양하고 있다. 계약 재배를 하고 있지 않아도 매년 봄이면 김씨의 조경수와 육묘 100만 본의 판매 계약은 끝날 정도다. 말 그대로 상품이 없어서 팔지 못한다.

김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실내와 조경 및 분재, 화분용 등 용도별 다양한 조경수를 생산해 낼 계획이다.

이미 상록 활엽수종 육묘 용기는 상품화됐다. 조경수 육묘(育苗)를 작은 용기(포트)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다. 용기의 조경수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갈이를 하고, 묘가 일정 정도의 크기로 자라면 조경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씨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현재 농업기술원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중이다. 또 청소년 수련원 등

에 선물용으로 납품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조경수 육묘 생산에서부터 나무로 성장하는 단계까지의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고유 수종 개발에도 착수했다.

김씨는 “올해 난대수종 중 총 10여종의 우리나라 고유 수종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다양한 조경수 상품 개발에 신경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사람은 조경수가 건설 조경 또는 도시 조경에만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실내와 조경 이외에 분재용, 화분용 등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면서 “농업도 경영이고 사업인 만큼 새로운 조경수 상품화와 다양한 거래처 확보 등을 통해 위기의 농업을 기회로 농업으로 바꿔 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씨의 성공은 좌절을 모르는 끈기가 크게 작용했다. 김씨가 지난해 수십차례의 시행착오와 3천만원의 거금을 들여 만들어낸 미생물 퇴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에서 ‘해담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석씨가 광평나무 등 상록활엽관목 육묘용기(포트)를 점검하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

한국 야생화 30% 1,323종 지리산에 서식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과 계절이 많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4천596종의 야생화가 서식하고 있다. 이 중 30%인 1천323종이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다. 지리산이 우리나라 야생화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야생화 체험 학습장=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88년부터 용담꽃을 시작으로 분화재배 기술, ‘노고단’ 향수, ‘구례소리’ 전통 향·캐러리 상품 개발 등 야생화 관련 연구를 지속해 온 이른바 야생

연구소·학습장 등 만들어 구례군 야생화의 보고로

화의 메카다.

이 때문에 전국 유일의 야생화 전문 전시관을 비롯한 야생화·잡자리·전통작물 학습원 등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야생화 연구소와 체험 학습장이 있다.

이 곳에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4천596종의 야생화 중 재배가 쉽고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100종을 선정해 가꾸고 있다.

◇지리산 야생화 학습원=지리산을 상징하는 능선에 소나무·이팝나무·능소화·인동초 등 조경수를 식재하고, 할미꽃·금낭화 등 봄꽃을 시작으로 원추리·슬개꽃이로 이어지는 여름꽃과 벌개미취·감국 등 가을꽃까지 감상할 수 있다.

섬진강 모양의 연못은 물다리와 쪽포로 자연미를 주었으며 자연석 사이에는 석창포·꽃창포·노랑꽃창포 등 수변식물이 식재돼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SAFA 신형 재배기 450W
VIEWPOINT
REPAIRS
1688-1471

신형 재배기 450W
신형 재배기 450W
신형 재배기 450W

“만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조이케질 SF-01

042)365-3200 • 1688-1471 02-487-8256

NAVER